



김길원 대표이사

3백억불의 0.5%. 작은개울이 모여 큰 개천을 ... 바다가 되듯이, 작은 힘의 위력은 대단하다.

또한 전체의 묶음 속에 꼭 들어있어야 할 부분이 빠져버린다면 그 전체의 탑은 이루어 질수가 없다.

이번 아주 작은 주춧돌이 된 바이엘화학. 지난 수출의날 기념식에서 동물약품업계 최초로 1백만불탑을 수상한 김길원씨.

「우리 동물약품도 세계시장에서, 호평받고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 받았었는데,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기자의 물음에 만족보다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세계 27개국의 양축가들로부터 제품에 대한 효능을 인정받았다는데 긍지와 자부심을 얻었다는

그는 잠시 생각한다. 지난 65년 창립당시 초보적인 단계에서 제품을 파는 것보다 신용을 팔기위해 가가호호 방문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를 ... 1백만불 달성! 그위에는 무수한 고통과 희생,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적극적인 뒷바침 그것이 전부였다.

무엇때문에... 눈앞의 이익보다는 업계의 발전을 위해 또한 국가의 이익을 위해 기업의 윤리는 얻은 만큼의 이익을 사회를 위해 환원한다는 원칙아래 그는 수출에 주력하고 열심으로 살아왔던 것이다.

그가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품질관리.

살아움직이는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과 실천은 철두철미한 정신으로 매사에 임한다.

품질관리는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고 경쟁에서 싸워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되고 신용을 창출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

그래서 모든 직원에게는 사명감을 심어주고 최신시설을 갖추는 동시 뚜렷하고 확실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권한을 부여한다.

바이엘화학이 품질관리를 위해 쓰이는 돈은 년 2억5천만원이상 당장 어떠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더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말이다.

개방사회에서 살고있는 현재 국제비교우위의 관점에서 축산을 다루어야 하고 보호무역의 장벽을 뛰어넘기위해서는 원가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제 우리는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리는 우뚝솟아야 합니다. 나 자신과 모두를 위해」

그의 얼굴은 만족보다는 더 전진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충만해 있으며, 바이엘가족 모두가 일보전진을 위해 눈은 더욱 빛난다.